

일본 종합상사, 수도 사업에 주력

최근 일본 종합상사들이 오거나이저(organizer)로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등의 메리트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앞세워 수도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.

종합상사 외에 산업혁신기구라는 공기업까지 참여하여 미래 유망 사업인 물 관련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□ 이토추상사 수도 사업에 참여

- 이토추상사가 수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의 민영수도회사 브리스톨워터의 주식 20%를 취득.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사업 확장을 서두르고 있음
- 현재 브리스톨에는 프랑스의 수도 관련 대기업인 스에즈엔 바이로멘트 그룹도 출자, 이토추는 제 3위 주주로 유럽의 수도 사업 관련 기업에 출자한 일본기업으로는 최초
- 이번 출자로 노하우를 획득, 아시아 등 성장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방안도 검토 중
- 앞으로 이토추는 신흥국 등에서 브리스톨과 제휴, 수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, 도시바나 히타치제작소 등 물 사업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메이커 및 컨설턴트회사들과의 협력하여 누수율이 낮은 고성능제품을 판매할 계획

- 수도 사업이 민영화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외에 칠레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 특히, 신흥국에서는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세계 물 관련 시장은 2025년에 현재의 수배에 달하는 약 100억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. 이중 약 90%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 부문이 점하고 있어, 시장진입의 여지는 매우 큼

□ 수도 분야 선발기업으로서 일본 종합상사

- 일본기업들 중에서 종합상사가 수도 사업에 먼저 참여
 - 마루베니가 산업혁신기구와 공동으로 칠레 3위의 수도 회사를 매수한 외에, 미쓰비시상사도 산업혁신기구, 닛키, 필리핀의 마닐라 워터와 호주의 수도 회사를 매수
- 자원·에너지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종합상사들로서는 수도 사업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

□ 일본 종합상사 물 산업의 선발주자인 유럽기업과 전략적 제휴

- 일본에서는 일찍이 마루베니, 미쓰비시가 수도 사업에 나섰으나 유럽의 기업들에 비하면 늦은 편임
 - 해수담수화 등에 사용되는 역침투(RO)막 분야에서 닛토우전공이나 도레이 등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의 50%를 점하는 등 물에 관한 요소기술은 매우 풍부하고 이러한 강점을 살려 물 사업을 강화·확대하려 하고 있음

- 수도 기술은 누수율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데, 동경수도국의 누수율은 3%로 유럽의 평균치 10%보다 훨씬 낮음
- 구보타, 세키스이화학공업 등 고품질의 수도관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은 데다, 청진기와 같은 기계로 누수를 체크하는 노하우를 축적
- 그러나, 이제까지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해외사업은 수도관이 나 정수막, 일부 플랜트수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
- 물 관련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 등 시설건설에서 운영, 요금징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업을 하는 소위 ‘물 메이저’로 불리는 유럽기업들은 신흥국에서 대형 수주를 확보해 옴

□ 시사점

-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종합상사가 조직화하여 수주활동을 하는 경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수도 사업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
- 일본은 종합상사뿐만 아니라 산업혁신기구라는 일종의 공기업까지 참여하여 수도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물 사업의 엄청난 미래 시장규모 등을 고려, 우리도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과 규제문제를 재검토할 가치가 있음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5.11)